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홈스테이 하는 주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스카이 트레인, 버스 타고 40분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 것 같다. 학교는 깔끔하고 넓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오전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고 그 외에도 문법, 문화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질문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수업은 대체적으로 옆에 앉은 친구와 둘이, 아니면 조를 짜서 조원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액티비티에는 컬링, 캐필라노 브릿지, 아쿠아리움, 미술관 등 다양한 것을 했다. 준비물은 딱히 필요한 것이 없으며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한다. 컬링을 할 때는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불릴 만큼 비가 많이 온다. 눈은 많이는 안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가 닫은 날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은 매일 들고 다녀야 했다. 그러나 날씨가 엄청 추운 편은 아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너무 밤 늦게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안전한 것 같다. 홈리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는 있지만 어둡거나 외진곳으로 다니지 않는다면 안전하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내 방이 있고 홈스테이 가족들도 나의 사생활을 지켜 주셔서 매우 좋았다. 샤워는 하루에 한번 20분 이내로 하라고 하셨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 주셨다. 사전에 메일을 보내서 수건, 드라이기 등이 있냐고 물어봤고 드라이기를 빌려주시겠다고 해서 편하게 사용했다. 일요일에는 같이 나가서 마트도 가고 관광도 시켜 주셔서 너무 좋았다.</p>
식사	<p>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주로 홈스테이 가족이 싸 주신 걸로 먹었고 가끔씩 내가 한국에서 따로 챙겨간 음식들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다. 홈스테이 부모님이 싸 주시는 식사는 집마다 달랐지만 나는 매일 샌드위치를 싸 주셨다. 원하지 않는다면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싸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저녁은 주로 밖에서 사 먹었고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는 집에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있다.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compass 카드를 이용하면 버스는 어느 곳이든 추가요금 없이 다닐 수 있고 스카이 트레인 은 6시30분 이전에는 zone 1 이내에서만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다른 존으로 넘어가면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6시 30분 이후와 주말에는 추가요금 없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900000	
개인 사비	약 650000	기념품, 식사 개인 쇼핑 등
합계	약 25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3주동안 홈스테이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전에 메일로 정보들을 얻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특정 물건들이 있냐고 물어보고 빌려주신다면 그 물건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짐을 줄일 수 있다. 빨래, 욕실 사용 규칙과 같은 것들을 미리 물어보고 가면 편리하다. 불만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3주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마트에서 물건사기,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에는 쉽게 영어로 주문하고 계산할 수 있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한번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게스 타운의 'steam clock'



컬링



밴쿠버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그랑빌 아일랜드



밴쿠버 아트 갤러리